

'으랏차차' 새로운 삶 싹 틔운다

향일암 운영 노인복지관에 새싹채소 작업장 마련



향일암이 위탁운영하는 동여수노인복지관이 새싹채소 작업장을 운영하고있다

노인들 일자리아업 일환

"진짜배기 인생은 60부터죠. 새싹채소를 키우다보니 '인생의 싹'도 새롭게 크고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주지 원관)이 위탁운영하는 동여수 노인복지관(관장 우석) '으랏차차! 새싹 나래 작업장' 전기념(7)1 반장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채소 싹을 바라보면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며 활짝 웃는다.

새싹채소 작업장은 지역 노인들의 여가 활동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아업의 일환으로, 최근 웰빙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새싹채소를 키워 보급하는 공동 작업장이다.

현재 '으랏차차' 작업장 식구는 10명. 대부분 70대이지만 2회에 걸친 면접을 통과한 당찬 일꾼들이다. 지난 6월부터 시험재배에 들어간 작업반은 직접 재배한 새싹채소를 새벽시장에 가지고 나가 판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향일암 주지 원관 스님은 "거름, 흙도 필요없이 물과 자상한 관심만 있으면 자라는 새싹채소는 힘든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아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거리이다"며 "새싹채소 수요가 늘어나면 작업장을 확대해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관 창고를 빌려 시험재배를 마친 작업반은 오는 8월 30일부터 복지관이 마련한 30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에서 본격적인 재배와 판매에 들어간다.

이곳 작업장에서 재배하는 새싹채소는 무순, 알팔파, 적양배추, 다채, 브로콜리 등 5종으로 다자란 채소보다 영양가가 높아 비빔밥, 샐러드용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여수 최고의 약수인 석천사 물만 사용하고 있어 가정은 물론 사찰, 단체별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힘차게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더욱 젊게 살 것을 발원하며 '으랏차차'로 상표명을 붙인 작업반원들은 "수익이 나면 복지관을 찾는 동료들에게 돌려겠다"며 작업장을 지키고 있다. 새싹채소 문의 (061)641-3485 글·사진/여수=이준엽 기자

등의 축하무대와 어울림마당에 마련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 성은 스님과 이광길 남양주 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주지 무구 스님은 "교각 스님의 공적을 기리고, 불교의 가르침과 지역민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문화 행사를 가꿔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백련사는 중국 구화산에서 수행, 구화산을 중국불교 4대성지로 만든 교각 스님 기념관을 이미 사찰에 만들어 관련 전시물을 일반에 공개해왔다. (031)577-6433

김강진 기자

김완규 화백 달마도 보급 나서



한 원로화백이 '달마상 보급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달마도 보급에 나서 화제다. 주인공은 도형 김완규(70·사진) 화백. 평생 달마도와 호랑이 그림에 매달려 온 김 화백은 "불자들은 불성을 되찾고 일반인들은 불교의 깊은 뜻을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달마도를 보급하게 됐다"고 말한다.

김 화백은 또 "제 달마도가 수백과를 차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 의미 외에도 선 수행에 더 확신을 갖게 하는 마음도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김 화백은 몇 년 전부터 각지의 불교행사 때 불자들에게 자신이 그린 달마도를 보시하고 있으며, 달마도를 요청하는 불자들에게도 그림을 보시할 계획이다. (042)623-6064 한명우 기자

백련축제, 불교문화행사 다채



서남통합사암연은 무안백련축제 일환으로 불교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서남통합사암연합회(회장 경훈)는 8월 15일 무안 회산 백련지에서 영산법회를 개최했다.

제9회 백련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각 종단 중정, 지역사찰 스님과 박종영 전남지사, 서삼석 무안군수 등 지역 기관장, 전국에서 모인 불자, 관람객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경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진흙 속에 피어나는 고고한 백련처럼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교각 스님 탄생 기념 헌다례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가 8월 27일 교각 스님 탄생 1210주년 기념 헌다례를 봉행한다. 경희대 조달호 교수의 사회로 기념식과 헌다식 등이 진행되는 이번 '제8회 교각 스님 헌다례'에는 다양한 연주, 공연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부처님 점안법회

화재로 법당소실, 50일만에 복원불사 회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부처님 점안법회에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대지에 내리는 비와 햇빛과 같이 꽃을 피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결국 공부는 자신이 해야 한다"며 "마음공부가 순일하지 않는다고 퇴굴심 내지 말고 울곧게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6월 25일 불의의 화재로 법당이 소실된 후 50여 일간의 복원불사를 마치고 이날 회향했다.

이준엽 기자



논산 관촉사에 배치된 소방차.

논산 관촉사에 소방차 배치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철영, 이하 소방안전본부)는 전통사찰의 화재 진압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논산 관촉사(주지)에 소방차를 고정 배치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조작기술과 화재 진압요령 교육을 매월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북한산 용암사

"기도소리 끊이지 않는 도량"



올 1월 다녀온 인도·네팔·태국 성지순례 때 태국 왕궁사원에서 기념촬영을 한 모습. 용암사 주지 정천 스님(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신도들은 해외 성지순례 때마다 법회를 열고 기도도를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는 용암사주지 정천은 신라시대의 고찰로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기도도량이다. 대웅전 바로 뒤에는 용암사를 한 바위와 거북 모습을 한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용암사를 감싸고 있다.

사실 용암사는 신라고찰이라고는 하지만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 흔적만 있었을 뿐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런 용암사를 중창한 사람은 현 주지인 정천 스님이다. 조선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과 석등만이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

이렇게 정성을 들여 영가천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뿌리없는 자손은 없다'는 주지 정천 스님의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용암사 영가천도 기도는 단순히 조상의 복락을 비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선업을 짓는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인식돼 있다.

영가천도 기도가 아니더라도 용암사를 찾는 일반인과 신도들도 적지 않다. 24시간 법당 문을 열어놓아 기도객들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용암사에서는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선업 짓는 다짐으로 조상 및 영가 '천도기도' 공양물 직접 준비 해외 성지순례서도 법회 열어

는 것을 본 정천 스님은 용암사의 옛 모습을 되살리겠다는 발원으로 오랜 세월을 걸쳐 불사를 했다. 그리고 올해 마침내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

용암사는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기도도량을 찾아다니는 불자들에게는 제법 이름이 나 있다. 조상 및 영가 천도 기도를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불자들이 모여든다.

용암사 영가천도 기도는 일년에 두 차례, 즉 4월 보름과 10월 보름에 일제하고 7월 보름과 정월 보름에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제부터 해제까지 90일 동안은 용암사 스님은 물론이고 신도들도 열심히 기도를 한다. 그리고 해제 날에는 천도재를 지낸다.

용암사의 또 다른 특징은 정기적으로 '기도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교유적 해 마친내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 용암사는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기도도량을 찾아다니는 불자들에게는 제법 이름이 나 있다. 조상 및 영가 천도 기도를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불자들이 모여든다.

주지 정천 스님은 "용암사에서 특별한 일 '이런 없다'고 말한다. 기도도량에서 기도 외에 달리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참회하고 복을 짓겠다는 발원을 하는 것만큼 특별한 기도 방식을 도입했다. 일제부터 해제까지 90일 동안은 용암사 스님은 물론이고 신도들도 열심히 기도를 한다. 그리고 해제 날에는 천도재를 지낸다.

한명우 기자

수신통종오기피 禮處 禮處

禮處(예현)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는 진상품을 일컫는 말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현 禮處

품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약품안전청 생약 규격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기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통종오기피 예현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수신통종오기피 예현이 함유되어 있다는 의미는 오기피 제품은 성분순수 수신통종오기피와 허약의 관여를 일컫는 것입니다. 수신통종오기피 예현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어가 서빙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철도원을 드립니다.

오직 900분에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통종오기피에서도 수신통종오기피 예현은 1달에 오직 9000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기피재배지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기피만을 원료로 사용하며입니다.

수신통종오기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통종오기피 예현에는 복제품을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일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신물하는 분께 그 가치를 품격을 인정드립니다.

수신통종오기피 예현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실전사주명리학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 과정

동양 전통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오행의 변화와 역의 원리를 통한 대자연의 이치인 (천,인,지 사상) 하늘,사람, 땅의 이치를 깨달으며 사회관, 국가관, 세계관을 통한 지아를 발견하고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또한, 단순한 길흉화복만을 예언하는 운명학 차원을 넘어 역학을 통한 각자의 인연의 법칙을 알고 도덕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며 모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실전사주명리학 초급 (9월 1일 개강)
목요일 10:30 ~ 13:30 (16주 : 30만원)
실전사주명리학 중급 (9월 1일 개강)
목요일 15:00 ~ 18:00 (16주 : 30만원)
실전사주명리학 연구 (8월 30일 개강)
화요일 14:00 ~ 17:00 (16주 : 30만원)

모집 안내

▷ 접수 및 등록기간: 2005. 6. 27 ~ 8. 26

▷ 담당교수: 김 동 현 017-704-8373

▷ 수강대상: 일반성인 남·여 / 학력 제한 없음

▷ 개 강 : 2005년 9월 2일 금요일

▷ 수 강 료 : 학비가 100만원 (2학기 과정)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 2매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02)745-2142

실전사주명리학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실전사주명리학 특별속성과정

동양전통사상과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의 변화와 오행의 생극제화의 법칙인 실전사주명리학을 기본으로 기초 관상학, 육효학, 구성학, 수리직법, 성명학 등 전문 역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학문들을 공부하는 과정이며 사주명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많은 시간과 학비를 보다 절약하며 짧은 시간 동안에 전문강사로부터 실전에 필요한 핵심 강의의 초급부터 고급통법까지 학습할 수 있는 [특별과정]입니다.

강의 내용	담당 교수
실전사주명리학 관상학 / 성명학	김 동 현 금요일 10:30 ~ 13:30
육효학 / 구성학	김 경 표 금요일 15:00 ~ 16:00

모집 안내

▷ 접수 및 등록기간: 2005. 6. 27 ~ 8. 26

▷ 담당교수: 김 동 현 017-704-8373

▷ 수강대상: 일반성인 남·여 / 학력 제한 없음

▷ 개 강 : 2005년 9월 2일 금요일

▷ 수 강 료 : 학비가 100만원 (2학기 과정)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 2매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02)745-2142